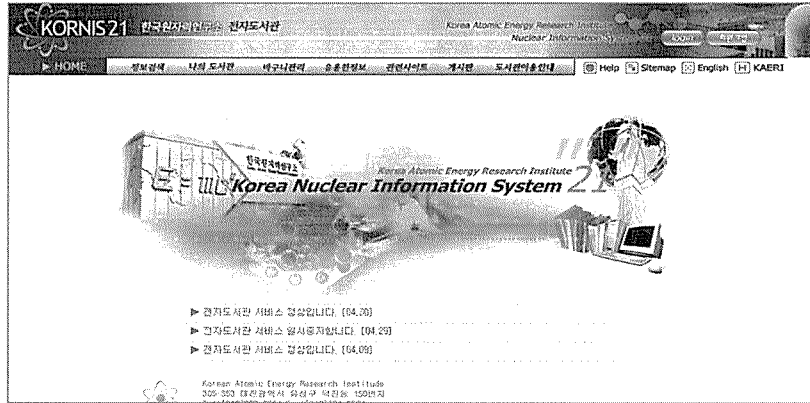


도서관탐방

최첨단 원자력정보 생산·보급의 산실

한국원자력연구소 기술정보실을 다녀와서



▶ 한국원자력연구소 전자도서관 홈페이지 메인 화면. 대국민 원자력정보제공시스템인 「KORNIS21」은 외부 비공개 자료를 제외한 모든 정보가 내부 시스템인 「NUCLIS21」과 실시간으로 연동된다.

1959년 이승만 대통령이 원자로 기공식에 참석, 우리나라 원자력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역사적인 시삽을 한 지가 반세기전의 일이다. 이후 국내 원자력 기술수준은 “하나로”라는 연구용 원자로를 완공하는 등 세계적으로 Top10안에 꼽히며, 2010년까지 세계 5위(G5)권 수준으로의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원자력 기술발전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혹 지난 50여년간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 환경에 끊임없이 도전하며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개발해온 “한국원자력연구소 기술정보실”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은 세계의 이목이 어느 한 나라의 대통령 선거에 집중되어 있던 11월 초, 경부고속도로 북대전 인터체인지 초입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찾았다. 보안이 엄격하여 정문 방문객실에서 대기하고 있자니 기술정보실 직원 분들이 직접 나와 우리 방문팀을 환영해 주었다. 4만평 정도의 면적에 수십 개의 건물이 들어서 있는 연구소에는 원자력관련기관인 한국전력기술(주)(KOPEC), 원자력환경기술원(NETEC) 및 한국원전연료(주)(NKNFC) 등의 직원들까지 포함하여 약 2천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다.

◆ 최첨단 원자력 기술정보 지원

정보과학동 2,3층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소 기술정보실(이하 “도서관”)의 업무는 크게 세 분야로 나뉜다. 가장 중요한 역할로는 모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연구 및 개발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 종 과학기술 정보자료를 수집, 정리, 가공, 축적하여 연구자들의 정보 요구를 충족시키는 일이다.

수집자료는 단행본, 연구·기술보고서, 학술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연구소의 특성상 최신의 과학기술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학술지 특히 전자저널 구입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예산 절감을 위해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자저널 국가 컨소시엄을 활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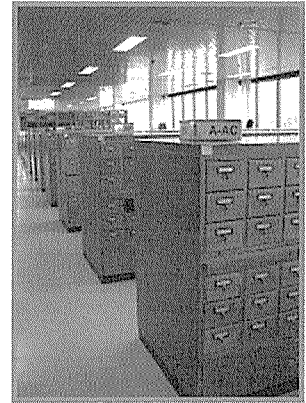
또한 어떤 단체나 개인이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받아 연구한 결과를 연구 의뢰자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생산되는 연구·기술보고서도 매우 중요한 정보원이 되는데 특히 마이크로피시 형태로 제작, 판매되고 있는 DOE(미국 에너지성, U.S. Department of Energy) 발행자료와 CD-ROM 형태로 제공되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의 INIS(국제원자력정보시스템, International Nuclear Information System) 자료는 이용도가 높다.

〈소장자료 현황〉 (2003. 12.)

자료별		장서수			
도서 (단행본)	일반	양서	33,930	49,913	61,064
		동서	15,983		
	참고	양서	5,492	11,151	
		동서	5,659		
비도서					2,106
학술지	제본	양서	48,019		58,547
		동서	10,528		
	신간 (중수)	국외	구입	211	297
			기증	86	
		국내	구입	57	195
			기증	138	
전자저널	국외	구입	1,612	1,612	
PAPER					84,139
연구 및 기술 보고서	마이크로 피시	DOE	480,554	641,787	725,925
		IAEA	113,702		
		기타	10,458		
	CD-ROM ('98부터)	IAEA	37,073		

현재 소내 연구원들은 「전자정보 인프라 구축」 과제의 일환으로 2001년에 구축된 웹기반의 정보

관리 토털시스템인 「NUCLIS21」(NUC Lear Information System 21, 뉴클리스 21이라고 읽는다.)을 통하여 정보를 이용하고 있는데, 최근 도서관은 「NUCLIS21」에서 NDSL(국가과학기술전자도서관, 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의 해외학술지에 대



〈도서관 3층 한 쪽을 가득 메운 마이크로피시 자료. DB건수 7만건〉

한 정보를 검색하고 전자저널 원문을 원클릭으로 이용할 수 있는, 특히 연구소 경영정보(MIS)와 연결된 인사·과제·회계정보와 연동하여 원문복사신청 및 비용처리가 가능한 서비스를 구축하여 경영진과 이용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최신 학술지목차서비스 범위가 기존 14,000여종에서 46,000여종으로 확대되면서 구입비용 및 관리비용은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온 사례로, 상세 내용은 제42회 전국도서관대회 주제발표논문집 참조)

#### ◆ 대국민 원자력전문정보센터

도서관은 또한 국가 원자력전문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원자력 전문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및 웹 디렉토리 구축사업」 「UNION DB 구축사업」 「에너지정보유통사업」 등 외부기관이 요청하는 소장자료의 정보공유를 위한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대국민 원자력정보제공시스템인 「KORNIS21」(KORea Nuclear Information System21)을 2002년부터 가동하여 국민 누구나 원자력 관련 분야의 1백만 건 이상의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검색,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연구소에서는 원자력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들이 쉽게 검색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인 '원자력 지식정보 관공국' (<http://www.watomcorkr>)을 구축,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도 원자력관련기관의 문헌정보 검색이 가능하다〉

◆ 국제원자력정보시스템의 국내센터 역할

아울러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원자력정보시스템(INIS)의 국내 센터(National Center)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INIS는 원자력정보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세계 각 국(110국, 19개 국제기구)에서 생산되는 원자력관련 기술정보(연간 약 8만 건)를 국가간의 협력에 의해 수집하고 제공하는 국제적인 정보유통시스템이다.

현재 국내 원자력분야의 발전으로 인해 INIS 데이터 입력량 및 입력 순위가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2003년 4월부터는 INIS DB의 아시아지역 호스트 사이트([www.inis2.com](http://www.inis2.com))로 지정되는 등 원자력 강국으로서 INIS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사서의 영역을 확장하며

현재 국내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정보센터들은 인력 충원 동결, 조직의 통폐합·축소, 관련 예산의 지원 부족, 정보기술의 급속한 변화, 이용자들의 다양한 정보요구, 관련 정보센터와의 경쟁 등으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때 조직 내의 지



〈열람·대출·데이터베이스구축에서 원문제공·최신정보제공·특허정보분석 서비스까지 맡은 분야는 다르지만, 정보서비스 환경을 둘러싼 변화의 속도에 위협받지 않고 변화를 즐기며 오히려 도전의 기회로 삼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진 도서관 식구들. 왼쪽부터 오정훈 과장, 유안나·전영준·김태환·이지호·유재복 사서〉

식경영시스템 구축을 주도하고 단순한 정보검색이 아닌 정보분석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원자력연구소 기술정보실의 사례는(기존에는 관련 특허를 검색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검색된 자료를 일일이 분석하여 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까지 제공한다. 변리사에게 지급될 비용이 절감되니 연구소 입장에서 당연히 환영한다.)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역이용하고자 하는 도서관인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사실 소규모 인력으로 조직 내에서 도서관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는가. 하지만 이미 이 세상은 변하고 있고 피해갈 수 없다면 오히려 그 흐름을 주도해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IAEA)

[글 : 박경아 기획 · 홍보팀장, 사진 : 심효정]